2026 IBK기업은행 베트남법인 출범식 참석 출장 결과보고

2026. 10

K-BIZ 중소기업중앙회

1 출장 개요

❑ 기본개요

- ㅇ **출장목적** : 기업은행 초청에 따른 IBK기업은행 베트남법인 출범식 참석 및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의
- ㅇ **출장기간** : 10.11(일) ~ 10.14(월) / 3박 4일
- ㅇ **출 장 지** : 베트남 하노이
- ㅇ **참 가 자** : **중앙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김석원** 부회장
  * (실무) 강지철 실장, 박다원 사원

❑ 주요일정

일 자	주요 일정
10.11 (일)	[출국] 인천 – 하노이
10.12 (월)	ㅇ (10:00) 롯데몰 시찰
	ㅇ (18:00) 현지 국회의원 및 기업인 만찬
10.13 (화)	ㅇ (14:00) 베트남 중소기업협회(VINASME) 간담
	ㅇ (17:30) 기업은행 베트남법인 출범식
10.14 (수)	[귀국] 하노이 – 인천

2 주요 내용

❑ 현지 기업인 및 국회의원 만찬

- ㅇ 일시/장소 : 10.12(월) 18:00 / 삼원정
- ㅇ 참 석 자
  - 중 앙 회 : **중앙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김석원** 부회장,
  - 베 트 남 : **응우옌 탄 콩** 국회의원, **고상구** K&K 글로벌트레이딩 회장
- ㅇ 주요내용
  - 한·베 합작투자 및 산업협력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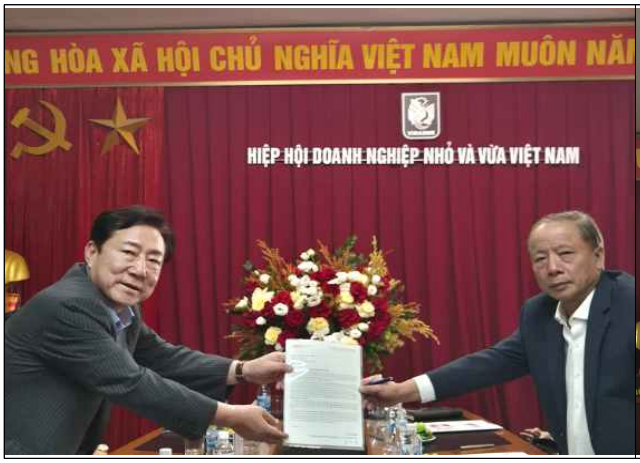
❑ 베트남중소기업협회 (VINASME) 간담

- ㅇ 일시/장소 : 10.13(화) 14:00 / VINASME 본부
- ㅇ 참 석 자
  - 중 앙 회 : **중앙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김석원** 부회장, **강지철** 실장, **조근식** 소장, **박다원** 사원
  - 베 트 남 : **응우옌 반 떤** 회장, **또 호아이 남** 부회장, **응우옌 꾸옥 띤** 부회장, **응우옌 반 뜨** 부사무총장 등
- ㅇ 주요내용
  - 금년도 백두포럼 공식 초청
  - 양국 중소기업 간 공급망 공조 강화를 위한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 제안

< VINASME 개요 >

- ㅇ (소 재 지) 베트남 하노이
- ㅇ (설립연도) 2005년 7월 19일
- ㅇ (회 장) 응우옌 반 떤
- ㅇ (조직구성) 6.5만 개사·61개 협회 / 베트남 전역 49개성 지역조직 보유
- ㅇ (조직운영) 집행위 84명 / 28개 본부
- ㅇ (주요기능)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 성원단체로 베트남 중소기업을 대변
  - 당·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중소기업 권리보호, 경영개선·법률자문 등 수행

○ 현장 사진





❑ IBK기업은행 베트남법인 출범식

○ 일시/장소 : 10.13(화) 17:30 / 인터컨티넨탈 그랜드볼룸

○ 참 석 자 : 한·베 정부관계자, 기업인 등 **400여 명**

– 한　　국 : **중앙회장, 장민영** 기업은행장, **이미연** 주베트남한국대사, **양모세** 한인회장, **고태연** 코참 회장 **등**

– 베 트 남 : **팜 꽝 중** 중앙은행 부총재, 총리실 관계자 등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7:00-17:25	25′	VIP 티타임	
17:25-17:30	5′	입 장	
17:30-17:45	15′	개회 선언 & 내빈 소개	
17:45-17:50	5′	**환 영 사**	○ 기업은행장
17:50-18:10	20′	**축　사**	○ 팜 꽝 중 중앙은행 부총재 ○ 이미연 대사 ○ **중앙회장 (축하패 전달)** ○ 양모세 한인회장 ○ 고태연 코참회장 ○ 법인장/노조 부위원장
18:10-18:15	5′	홍보영상 상영	
18:15-18:25	10′	**세리머니**	
18:25-18:30	5′	축배 제의	
18:30-19:30	60′	만　찬	

ㅇ 현장 사진


2026년 10월 13일
LỄ RA MẮT NGÂN HÀNG IBK VIỆT NAM
IBK베트남은행 출범식
LỄ RA MẮT
NGÂN HÀNG IBK VIỆT NAM
2026년 10월 13일 I Ngày 13 tháng 10
IBK
은행

3 언론보도

중소기업뉴스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004면 이슈

IBK베트남은행 출범…"한·베 中企 함께 성장하는 금융지원 기대"

김기문 회장, 베 총리 등 고위 인사에 법인 설립 지속 건의
2017년 첫 신청, 올해 3월 본인가 취득… 지난달 영업 개시
지방공단에 흩어진 한국기업 금융 서비스 확대 기대 상승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IBK베트남은행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미연 주베트남 한국대사,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장민영 기업은행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IBK베트남은행 출범식'에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업은행 현지법인 설립을 축하했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현지법인 설립인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김 회장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담아 출범식에 초청했다. 행사에는 장민영 기업은행장과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이미연 주베트남 한국대사 등 양국 금융·경제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팜 꽝 중 부총재, 이미연 대사 등과 함께 축사를 전하고 법인 출범을 기념하는 리본 커팅에 참여했다.

기업은행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은 현지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넓히기 위한 과제였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하노이·호찌민뿐 아니라 박닌·동나이·하이퐁 등 각지의 산업단지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그동안 하노이와 호찌민 두 지점을 중심으로 이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해왔다. 지방 공단에 흩어져 있는 기업들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지법인을 통한 점포 확충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가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업은행은 2017년 7월 베트남 중앙은행에 법인 설립인가를 처음 신청했다. 당시 베트남은 부실채권 정리와 취약 은행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외국계 은행의 신규 진입에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실제로 같은 해 9월 싱가포르 UOB를 끝으로 은행 법인 신규 인가는 사실상 멈췄다.

기업은행은 현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듭한 끝에 2025년 1월 인가를 재신청했고, 같은 해 5월 30일 공식 심사 절차 개시를 의미하는 인가서류 접수증을 받았다. 이어 올해 1월 예비인가를 거쳐 3월 24일 본인가를 취득했다. 최초 신청 이후 약 9년 만으로,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베트남 현지법인 인가를 받은 세 번째 한국계 은행이 됐다.

중기중앙회도 인가를 위한 설득에 꾸준히 나섰다. 김 회장은 2023년 6월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당시 팜 민 찐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인가를 최초로 건의했다. 이듬해 7월에는 방한한 팜 민 찐 총리를 기업은행장과 함께 만나 조속한 인가를 재차 요청했다. 당시 팜 민 찐 총리는 "기업은행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인가에 대해서도 중기중앙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해 11월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 호아락 캠퍼스에서 기업은행과 공동 개최한 '한·베 투자협력포럼'에서도 현지법인 설립 필요성을 알렸다. 응우옌 화 빙 베트남 수석부총리와 정부 고위관료,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김성태 당시 기업은행장은 축사에서 "IBK는 현재 2개의 지점만으로는 베트남에서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 "당시 행장께서 법인 설립 인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돕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은행의 법인 설립을 우선적으로 건의했다"며 "이후에도 베트남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말했는데, 이렇게 결국 출범하는 결과로 이어져 더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IBK베트남은행은 베트남의 열 번째 외국계 은행 법인으로 지난달 25일 영업을 시작했다. 기업은행은 기존 두 지점의 거래 기반과 현지 운영 경험에 60여 년간 축적한 중소기업 금융 전문성을 더해 주요 산업단지로 점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베트남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도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과 투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양국 경제협력이 단순 자본투자에서 혁신기술 공유와 합작투자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호 기자

IBK베트남은행 설립 주요 경과

- **2017.7** 기업은행, 베트남 중앙은행에 현지법인 설립인가 최초 신청
- **2023.6** 중기중앙회, 대통령 베트남 순방 당시 팜 민 찐 총리에게 기업은행 현지법인 설립인가 건의
- **2024.7**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방한한 팜 민 찐 총리 만나 조속한 인가 재요청
- **2025.1** 기업은행, 현지법인 설립인가 재신청
- **2026.1.23** 베트남 중앙은행 예비인가 취득
- **2026.3.24** 현지법인 설립·영업 본인가 취득
- **2026.10.13** 하노이에서 출범식 개최

.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016면 금융

IBK기업銀, 베트남법인 추진 9년만에 출범

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주요 산단 영업망 확대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IBK베트남은행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6번째부터 이미연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팜꽝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고태연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장, 오른쪽은 박경일 IBK베트남은행 법인장. /사진 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9년간 추진한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존 지점의 운영경험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법인 IBK베트남은행 출범식을 개최했다. IBK베트남은행은 베트남의 열 번째 외국계 은행 법인이다. 베트남 정부가 자국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외국계 은행 인가를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법인 출범까지 약 9년이 걸렸다.

법인 전환은 현지 금융지원 기반을 넓히기 위한 숙원이었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하노이·호찌민 두 지점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베트남 각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설된 IBK베트남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산업단지에 영업망을 확충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박경일 IBK베트남은행 초대 법인장은 "IBK베트남은행의 공식 출범은 2008년 호찌민 지점 설립 이후 추진해온 베트남 현지화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는 책임금융을 실천해 베트남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현지 은행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

헤럴드경제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008면 금융

IBK기업銀, 베트남 10번째 외국계 은행 법인 출범



이미연(왼쪽 여섯 번째부터)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대사와 팜꽝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고태연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 박경일(오른쪽 첫 번째) IBK베트남은행 법인장 등이 13일 열린 'IBK베트남은행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하노이·호치민 기반 영업망 확대

베트남 진출 기업·현지 중기 지원

IBK기업은행이 약 9년에 걸친 인가 절차를 마치고 베트남 현지법인을 공식 출범했다. 기존 하노이·호치민 지점을 기반으로 현지 영업망을 넓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법인 'IBK베트남은행' 출범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현지법인 설립 본인가를 받았다. 이후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해 지난달 25일부터 IBK베트남은행의 정식 영업에 들어갔다.

베트남 정부가 자국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인가를 엄격하게 운영해온 가운데 기업은행은 약 9년간 절차를 밟아 현지법인 전환을 마쳤다. IBK베트남은행은 베트남 내 10번째 외국계 은행 법인이다.

기업은행은 기존 하노이·호치민 지점에서 축적한 영업 경험과 중소기업 금융 역량을 활용해 현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업망을 늘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뿐 아니라 현지 중소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박혜림 기자